

◇우리교회 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
호와여 내가 주를 사
랑하나다

(시편 18:1)

총현

1974년 12월 22일 발행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윤 종 순

서울중구충무로 5가36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 현 교 회

(27) 9937 · 9738



기쁜 성탄과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1974년 성탄절에, 편집위원 일동

75년도 교회역임원 임명

제 직 627명 총 1,396명

12월 첫주부터 3주에배 시간에

-당회는 1975년의 제직, 각구역, 구역장 및 권찰, 각부서 책임자 및 각부주일학교 부장, 교.....□
 □.....사등을 확정, 임명했다. 발표한 바에 의하면 권사 22명, 남집사 130명, 여집사 340명을 추가.....□
 □.....하여 제직총 627명과 총 73 개구역에 구역장, 권찰 333명, 신설된 영아부를 포함한 11부 주.....□
 □.....일학교 부장 및 교사 321명, 성가대원 115명 등에 이른다.□
 □.....75년도의 직책을 맡게 된 이들 1,396명은 지난 12월 1일엔 제직, 12월 8일에는 각구역 권찰.....□
 □.....12월 15일에는 각부 주교 교사, 12월 22에는 성가대의 임명식을 가졌다.□
 □.....임명받은 각부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당 회

회 장 : 김창인
 서 기 : 위영환
 부서기 : 이태규

2. 제직회

회 장 : 김창인
 서 기 : 최성림
 부서기 : 강순용
 회 계 : 윤종성
 실일회계 : 서일영, 오정현

김성국
 원정회계 : 김방진, 윤성철
 집금회계 : 김집선, 신현상
 김만익, 송귀남
 서무부장 : 한명옥
 예전부장 : 오승률
 영선부장 : 우성원
 구제부장 : 윤종순
 봉사부장 : 이희원
 미화부장 : 이옥녀
 감사위원 : 황기성, 김창배
 오승률, 윤종순

3. 성가부

부 장 : 임광석
 차 장 : 지금산, 박옥식
 여성성가대 :
 지휘 : 홍익훈 반주 : 서은숙
 제 1 성가대 :
 지휘 : 김정일 반주 : 천혜숙
 대학부성가대 :
 지휘 : 김중석 반주 : 백신숙
 고등부성가대 :
 지휘 : 하조명 반주 : 이승순
 중등부성가대 :
 지휘 : 이효은 반주 : 김희영
 초등부성가대 :
 지휘 : 김남윤 반주 : 정인숙
 유년부성가대

지휘 : 강혜영 반주 : 이신실
 유치부성가대

지휘 : 김 인 반주 : 남명우

4. 전도부

부장 : 김광철

5. 재단법인 총현동산

이사장 : 김창인
 전무이사 : 위영환
 이사 : 김치준 김광철 우성원
 감사 : 한명옥 김기정

6. 재정위원회

위원장 : 김기정 서 기 : 이용선

7.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정기성
 서 기 : 신계택 회계 : 이용선

8. 성경학원

원장 : 김창인 원감 : 신계택

9. 건축위원회

위원장 : 김기정
 서 기 : 한경일 회계 : 이병학

10. 해외복음선교회

회 장 : 김광철
 서 기 : 최석주 회 계 : 이창업

11. 동산관리위원회

위원장 : 위영환

12. 새 신자부

부장 : 박창수
 지도 : 정기성

13. 구역권찰회

회 장 : 백성룡
 서 기 : 김은호

14. 기관지「총현」

발행인 : 김창인
 편집위원장 : 위영환
 주간 : 신성중

15. 주일학교

① 새신자부

부장 : 박창수 지도 : 정기성
 부감 : 서일영, 백도선

② 영아부

부장 : 김한울 지도 : 정소영
 부감 : 조진근, 배옥인

③ 유치부

부장 : 조현명 지도 : 정연화
 부감 : 박용삼, 이의복

④ 유년부

부장 : 윤용규 지도 : 이승근
 부감 : 한경일, 김영자

⑤ 초등부

부장 : 이용선 지도 : 김태현
 부감 : 김중석, 박기현

⑥ 중등부

부장 : 신계택 지도 : 이연호
 부감 : 김준옥, 이희수

⑦ 고등부

부장 : 위영환
 지도 : 정관일
 부지도 : 김일동
 부감 : 최성림, 백인숙

⑧ 대학부

부장 : 최석주
 지도 : 신성중
 부지도 : 김길자
 부감 : 홍중섭, 김봉제

⑨ 청년부

부장 : 송순일
 지도 : 정상우
 부지도 : 이종영
 부감 : 김신호, 안윤진

⑩ 장년부

부장 : 진희문 지도 : 김중백
 부감 : 정석태, 이영주

⑪ 노년부

부장 : 김치준 지도 : 김제창
 부감 : 김은호, 김윤성

성경암송대회 — 시편 119편

—개인 1등: 김상순, 한영석
홍찬욱—

교회설립21주년을 기념하는 성경암송대회가 지난 11월 17일 오후에 실시됐다. 시편 119편을 암송성구로 정하고 실시한 이날에 대회에는 108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개인부, 구역부, 가족부등 3개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한 이날의 대회에는 개인으로 참가한 사람의 거의가 시편 119편의 전편을 암송하였다.

엄정한 심사결과 각부문별 1등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또한 11월 24일 주일저녁에 배시에는 개인부에서 1등한 김상순씨가 시편암송을 해준 교우의 감사를 받았다.

개인 1등: 김상순, 한영석, 홍찬욱
구역 1등: 돈암구역
가족 1등: 김도집집사 가족

영아부를 신설

—지도에 정소영전도사—

우리교회에서는 75년도부터 영아부를 신설하여 4세미만의 어린이와 어린이의 부모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배 및 성경공부, 어린이 정서교육, 유치원교육, 어머니교육 및 특강 등의 교육을 매주일 오전 9시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실시하게 될 영아부의 초대부장은 김한울장로, 지도엔 정소영전도사이다.

노년부 공부실시

—매주 2부예배 마친후—

지난해에 신설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노년부는 이에 힘입어 매주 성경공부 및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75년도 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70세 이상의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부는 매주일 2부 예배를 마친 후 노년부실(유년부실 뒷방)에서 모일 것인데 공부내용은 성경공부, 성도의 교제, 자손 축복하는 방법, 효를 받는 비결, 천국

의 소망과 준비등이며 지도에 김재창목사님이다.

「땅끝까지회」

—해외복음선교회—

선교사지망자 훈련과 선교회활동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땅끝까지회」라는 선교회후원회가 조직중에 있다.

주요사업계획으로 3, 6, 8, 11월 5째주 오후에 선교발표회(특강, 연주발표, 선교활동보고, 웅변대회)를 가지며 또한 매월 4째주 월례회 결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회에 입회대상자는 선교사 지망자와 선교회활동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된다.

「제3회 동기 성경 학교 강습회」

—수도노회주최 본교회당에서—

동기성경학교강습회가 지난 12월 12~14일 3일간 본교회당에서 열렸다. 매년 수도노회주최로 열리는 이 강습회는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데 올해도 한국기독교교육연구회에서 간행한 교재 「믿음과 생활」을 중심으로 하루 2시간씩 강의를 가졌다. 첫날과 끝날은 김진백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가졌는데 이번 강습회에 수강한 사람은 140명이다.

남전도회 총회

—회장에 한명욱 장로—

지난 12월 8일 3부예배를 마친후 남전도회 총회가 대에배실에서 있었다. 74년도의 사업보고를 듣고 이어 투표한 총회에서 한명욱장로가 회장으로, 부회장엔 홍중섭장로가 선출되어 지난해의 회장이 그 대로 유임됐다. 또 이날에 남 전도회 회지 「아가페」9호가 발행되었다.

여전도회도 총회

지난 주일(12월15일) 3부 예배후 여전도회 총회가 대에배실에서 열려 사업보고를 듣고 임원개선한 결과 회장에 김영화 원사가 부회장에 안윤진 원사와 진순자 집사가 당선되었다.

청년부 정기총회

청년부는 지난 11월 3일 오후 제 6차 정기총회를 갖고 75년도 회장단을 선출했다.

회장: 권석기
부회장: 이 욱, 김 인.

고등부 후반기총회

고등부는 지난 11월 17일 후반기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했다.

회장: 천인범
부회장: 안숙영

추수감사절 축하예배

—유치부주관하에 성극등—

11월 세째주 추수감사절을 맞아 저녁에 추수감사절 축하예배를 드렸다. 유치부에서 준비한 성경이야기, 성경암송, 감사무용 및 성극 등으로 다채롭게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 온 교우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 목사, 「갈보리」로

그동안 본교회에서 전도부 및 청년부 지도를 담당하시고 또한 「종헌」지 주간을 맡아 수고하시던 천성덕목사님이 지난 11월 6일부터 시배 마포에 있는 갈보리교회의 담임목사로 가셨다.

성탄 특별행사계획

성탄절을 맞아 각부주일학교에서도 성탄맞이 특별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고아원이나 군부대등을 방문하여 주님탄생의 소식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계획하고 있는 각부주일학교의 계획일정은 다음과 같다.

유, 초등부:

중등부: 통일촌교회

고등부: 시온유치원(인천, 24일)
무궁화촌(성동구 명일동 24일)

대학부: 통일촌교회(24일)

청년부: 소년원분원(24일)



예수님 탄생의 뜻

백 성 룡 목 사

1.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입니다(마1:22,23)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려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동방의 박사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면서 경배하였습니다. 또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늘에서부터 들려 오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예수님 탄생을 알려 주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사람을 죄에서 구원 하시려던 뜻이 계셔서 선지자들을 내시어서 미리 예언 하였고 그 예언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미리 말해두고 태어나거나 죽을 때 미리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을 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 하였고 미리 말씀하신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초림의 예언이 예수님 탄생으로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 제림의 예언도 머지 않아서 이루어 질 것을 믿고 경건하게 성탄절을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2.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하려고 오셨습니다.(눅19:10)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 “잃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인하여 그곳에서 쫓겨나 불행을 자초한 인간은 하나님에게 가장 큰 손해를 입히고 죄를 범한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사실은 하나님께에서 보실때에 피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을 잃어버리신 손실이 되었으며 사람편에서 본다면 가장 행복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었던 낙원을 잃게 되었다는 데서 최대의 불행과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사람은 참으로 가졌고 있어야 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고 바 되었다고 자유도 평화도 그밖의 어떠한 행복도 찾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같은 절망을 의식하면서 자기 상실의 회복을 시도해 보았으나 이것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해어 나오려고 하여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 빠져 들어 가는 것과 꼭 같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인간적 정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진야와 같은 참담한 이 세태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얻지 못할 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못 사람들의 마을 속에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아니 찾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이 땅이 갈망하는 자유와 평화와 풍요한 삶은 진정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고성탄을 뜻있게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3. 예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을 던지려 오셨습니다(눅 12:49-53)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은 진리와 공의의 표현이며 연결입니다. (시 85:10,11).

불의와 부정과 죄악된 일들을 덜어 둔 채 조용히 하던 끝 평화의 줄을 알아서는 잘못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화평이전에 화평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길을 주러 왔노라(마 10:34)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땅에 오신 목적의 한 면을 이같이 말씀 해주시고 이 싸움의 승리의 보장은 진리와 공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목숨을 버려 피를 흘리시는데 있다고 하셨습니다(마 20:28).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라고도 하셨습니다(눅 12:50)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던지신 불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고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 속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뒤를 이어 바울과 그밖의 많은 신실한 종들이 이 불을 던져 이땅에 죄악을 도발하는 일에 종사하였고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이 불을 던져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곧 복음전도의 사명입니다.

불을 던지는 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은 불을 던지려 오신 예수님의 탄생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뜻있게 맞이하는 일은 불을 던지려 오시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명상하면서 조용히 예수님이 던져 주시는 불에 옛사람을 태워 버리는 일과 형제들의 허물과 죄악이나 이 세상의 죄악들을 태워 버리기 위하여는 어떻게 불을 던져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면서(기도) 성경 속에서 해답을 얻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시는 분마다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 (1) 말씀의 성취의 확신과
- (2) 마음의 화평과
- (3) 삶의 자유와
- (4) 꾀절함이 없는 생활과
- (5) 복음선교의 사명과 기쁨이

꼭 있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르네오 섬으로 가다

— 제 5차 정글순회 전도여행 보고 —

〈인도네시아 선교부〉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 47-4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사역에 함께 힘을 기우리신 선교의 동지들과 총현의 모든 식구들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비오며 다음과 같이 10월중 사역을 보고하나이다.

활동 상황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섬에 있는 한국인 기업체를 중심으로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25일간 실시한 제 5차 정글순회전도여행은 지금까지의 전도여행 중 교통과 침식에 있어 가장 불편이 적었으며 비행기와 배를 탄 회수와 시간도 가장 길었다.

□ 동화캠프에서의 활동

10월 8일 새벽 선교관을 출발하여 동부 보르네오섬의 중심도시인 팔리파만까지는 비행기로, 그다음부터는 계속 배와 지프차로 120km를 달려 동화의 메인 캠프까지 당일치기 도착하였다. 한국인 65명과 원주민, 필리핀인, 말레이시아인 등 432명이 6개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낮에는 각 사업장 및 버크진 촌락을 방문하여 점점마다 요한복음을 나누어 주고, 저녁은 한국인과 인니인 종업원들을 위한 집회로 모였다.

특히 감사한 것은 이번 집회를 계기로 이곳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앞으로는 주일마다 주일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선교회 동지들의 수고의 결과 맺어진 기쁜 열매중 하나인 것으로 믿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금할길 없다. 한편 현지 본부는 이들에게 새 철자의 성경과 찬송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0월 12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던 동화캠프에서 비행 예정이 바뀌어, 11일 다음 예정지인 락간을 향하여 팔리파만을 떠났다. 할렐루야!

□ 경남캠프에서의 활동

경남기업의 출장소가 있는 락간에 도착한 것은 10월 11일 오전 11시 45분. 이곳에는 한국인 11명과 원주민, 말레이시아인, 필리핀인 등 200여명이 4개처에서 일하고 있었다.

10월 13일 주일까지 머무르며 C.M.A교단, 오순절교단, 서부자바교단 대표들을 방문하고 서부 자바

교단의 임마누엘교회에서 주일예배를 인도하였다.

다음날 14일부터 21일까지 경남 메인캠프를 중심으로 살담교회에서 한국인합동 예배, 한국인을 위한 매일 저녁기도회, 플로사비교회에서 특별집회, 생산캠프에서 한·인합동 기도회, 벨리따까난교회에서 주일예배 인도, 살담교회에서 특별집회 등의 부흥집회가 있었고 말리노 지역 및 성경학교를 방문하였다.

10월 22일 락간교회 연합회가 원하는 부흥집회는 인도하지 못함체 일정보다 5일이나 늦게 락간 공항을 이륙하였다. 할렐루야!

□ 남방개발 캠프에서의 활동

10월 22일 오후 팔리파만 공항을 경유하여 만제르마신의 남방개발 출장소에 도착하였다. 이곳에는 한국인 83명과 원주민 종업원 600여명이 최신장비와 수·육·공의 교통수단을 확보해가며 5개처에서 일하고 있었다.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남방개발 생산본부를 중심으로 한국 화물선 듀크호를 방문하고 화물선 승무원 기도회, 생산본부를 비롯한 각 작업장 방문 및 기도회 플로라울섬 교회의 주일예배 등을 인도하였다.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만제르마신오순절교회에서 특별집회를 인도하고 11월 1일 자카르타의 현지 본부로 은혜중 모든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동화캠프의 인니인 종업원들이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것을 감사드립니다.

동화기업의 승주호 전무께서 자카르타~락간 편도 항공권을 마련하여 주신것을 감사드립니다.

경남캠프 및 남방개발 캠프의 협조로 여러 섬과 오지를 방문하여 집회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육·공의 순탄치 못한 모든 여정을 선교회 동지들의 기도로 큰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을 특별히 감사드리며 생활비와 교통비를 인상하여 주신것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P.O. Box 2355 JKT.

Cable Address: HALLELUJAH

Tel. 581313

JAKARTA INDONESIA

1974년 11월 12일

선교사 서 만 수

복음화 전략 연구(하)

신 중 성 강 도 사

<대학부 지도>

□... 지난 9월29일에 발행된 「해외선교」(해외...□
□...복음 선교회발행)에서 나간 신 성중 강도...□
□...사의 「복음화의 전략 연구(하)」를 본 「중...□
□...현」지에 이어 실는다편집실...□

2. 복음화 지역에 대한 지리적 연구

복음화의 방법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은 추수에 필요한 기본적 도구들을 갖추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지리적 연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도들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주택과 강, 산들이 잘 기록된 지도(말하자면 군사 지도 따위)는 대단히 도움이 되며 그 밖에도 최근 인구통계와 그 지역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공공시설, 에킨메 학교, 공장, 시장, 타 교파의 교회 분포에 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린 아이들은 삼킬 수 있을 만큼만 깨물어라” 하는 충고이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충고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사과를 물어도 삼키는 양만 힘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의 선교 즉 복음화에도 이와같이 그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막연히 전 세계의 복음화나 또는 전국적인 복음화를 계획한다면 사과를 한입에 삼킬려는 사람과 같이 비현실적, 좀더 정확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기본적 자료(위에서 말한 지도, 인구조사, 주요 공공시설 분포 등)들을 갖춘 뒤에는 복음화의 대상지역을 정해야 한다. 흔히 주 대상지역(primary geographical areas of concern)과 제2의 대상지역(secondary geographical area of concern), 둘을 정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3마일 반경을 중심으로 주 대상지역을 정한다. 그러나 도시로 갈수록 이 거리는 줄어드는게 상식이며 농촌으로 갈수록 그 거리는 늘어난다.

그러면 이 3마일 반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교회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으로서 여기에는 배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시간과 거스로 보아 교회에 가기에 쉬운 장소라는 점, 두번째는 3 마일 반경안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건물주변에 오고 가며, 세번째는 교회 는 이 이웃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며 네째는 3마일 반경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

할수 있는 편리한 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복음화에 앞서 3마일 반경의 표시를 한 지도를 그린 후에 고가도로나 그밖에 교통의 편리점에 따라 이 3마일 반경을 유동적으로 좀더 넓힐 곳은 넓히고 좁힐 곳(예를 들어 산, 강같은 지역들)은 약간 좁혀서 그 교회의 복음화의 주 대상 지역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엔 그 지역을 연구한 후, 교회가 몇개나 있으며 어떤 공공시설이 있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이며 종교의 분포도나 지적 배경은 어떠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뿐만아니라 연령별 통계를 세워야 한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먹구구식(통계나 자료없이)전도 방법은 그 지역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설교자의 관심과 자질에 따라 어떤이들은 젊은 층만을, 또 어떤이들은 부녀층, 또 어떤이들은 노인층 등등의 한쪽에 치우친 균형이 잡히지 않은 전도방법으로 인해서 주 대상지역의 사람들을 놓치고, 대신 먼곳에 있는 제2의 대상지역에 있는, 한편 부류층의 사람들을 흡수함으로써 주일학교 교육은 물론,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신앙을 넣어주지 못하고 있다.

주대상지역에 대한 연구가 있는 다음에는 복음화를 하고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성분조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주 대상지역의 인구분포의 비교와 함께 어떤 부류층의 사람들이 소홀히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또 복음을 전할 인력개발을 위해서도 꼭 취해져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의 교사난을 겪고 있는 이유중에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인력(manpower)을 충분히 이용치 못하거나 키우지 못하는데 주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복음화의 자료가 다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이 밖에도 주택에 대한 조사는 큰 도움이 된다. 주택은 그 가정의 경제적, 교육적, 종교적 환경을 말해주는 통계표와도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업의 분포도는 그 교회의 예배시간 결정은 물론이고 예배의 내용, 나아가서는 복음화의 기회를 포착하는데 결정적 재료를 준다. 이상의 연구가 복음화 장소에 대한 지리적 자료로서 군인들이 전쟁에 앞박 적지를 정찰하고 야군의 화력을 검토하는 것과 같이 실전을 위한 전략의 기초 자료를 준다. 그 다음 단계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들에 대한 연구이다.

□...오늘날 자유주의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고백과 회개의 외침이 결여된 「절뚝발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매주 새 교인들이 많이 들어 오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수가 증가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세번째 단계인 후복음화를 등한히 하는 데 있다. ...□

3. 지역사회의 단체들에 대한 연구

어떤 지역사회를 막론하고 다 여러가지 요소들이 종합된 하나의 혼합물이다. 그것은 마치 꿀벌의 집과 같아서 여러개의 「작은 집」으로 구성된 하나의 큰 집단이다. 따라서 그 구성원들은 어린 아이들을 비롯하여 청년, 장년, 노년등의 계층이 있으며 직업별로도 학생, 상인, 교사, 공무원, 노동자, 의사, 실업인, 정치인들이 있으며 종교별로도 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장로교 및 무종교인등 가지 각색이어서 이 조사는 복음전도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기초자료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또는 메시지)과 전도방법을 구별하여야 한다. 복음은 시대와 장소와의 관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같으나 이를 전하는 방법이 다 다르며 또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토착화론(크리스찬 신문에서)이 몇의 종교 부로카들의 과당적 장난으로 과절된 것은 한국교회의 복음화 전략연구에 적어도 5년이상일 후퇴를 가져와다고 생각할 때 대단히 슬픈일이 아닐 수 없다. 크리스찬 신문에서 주장한 필자의 요지는 <복음의 본질은 불변하나 이를 전달하는 형태 곧 복음의 옷은 시대와 국가마다 다를뿐 아니라 토착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성서신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전개한 논문이었다. 우리는 「무식보수」 「바보보수」의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학문을 무조건적으로 비신앙시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복음화의 방법은 복음의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해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교 김 창인 목사님의 50~60년대의 복음화의 성공은 그분이 사용한 언어가 학문적, 추상적 용어가 아닌 산 데중언어이며 또 6.25이후 재건과정의 역경에 처한 월남한 상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접촉점(Point of Contact)을 마련 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사에서 길이 연구되어야 할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상의 평가는 그분의 배후에서 역사한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복음화의 방법론이 이같이 중요하다는 예에 불과한 것이다.

4. 복음전달의 세단계

복음화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복음전달의 세 단계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 세 단계란 전복음화(Pre-evangelism)와 복음화(Evangelism) 그리고 후복음화(Post-evangelism)로서 실제로는 이들이 기차의 선로와 같아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편의상 구

별한 것이다.

전복음화란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 땅을 갈고 준비하는 것과 같은 준비과정을 말한다. 즉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이 전복음화를 위해서는 기독교에서 경영하는 학교, 병원, 교아원, 등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다.

다음 단계는 복음화자체이다. 이것은 농부가 씨를 뿌림 같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다. 복음화엔 적어도 네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에 대한 기본 소식을 말해야(telling)한다. 두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개인적 신앙으로 고백(Confessing)하여야 한다. 세번째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적용(Applying)해야 한다. 네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 새 삶을 위한 회개를 외치야 (Calling)한다. 오늘날 자유주의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고백과 회개의 외침이 결여된 「절뚝발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인 후복음화란 농부가 호미로 길을 매우고 비료를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는 성장을 위한 노력을 말한다. 매주 새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수가 증가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세번째 단계인 후복음화를 등한히 하는 데 있다. 필자가 발견한 대로는 중현교회의 경우 이 세번째 단계가 위의 두단계에 비해 가장 약하다는 사실이다. 하루속히 이 후복음화의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인들의 증가 이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물이 많이 들어와도 뚝이 튼튼한 뿌리 아니라 흐려 흐려 흐려 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III. 결 론

이상에서 필자는 복음화의 전략에 대한 서론적 연구를 발표하였거니와 이에 대한 보다깊은 구체적 연구를 위해서는 해의복음선교 산하에 전략연구를 위한 분과가 구성되고 이 연구를 위한 자료와 함께 재정적 뒷바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 중현교회는 신앙적 기반이 순수하여 교인들을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몇배로 발전할 소질이 다분히 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도 그 밑에 좋은 참모들이 없이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또 아무리 좋은 참모가 있다해도 실제로 싸우는 것은 사병임으로 평신도의 교육은 계속될 뿐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좋은 참모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육사와 같은 장교훈련을 위한 특수교육이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을 필자는 재교육이라고 부른다. 이를 위해 성경학원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가 또 온다. 매년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맞을 때마다 개심한 구두쇠 영감 스크루우지의 이야기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는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의 회곡화된 작품 「크리스마스 캐럴」을 우리 충현의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다. 이는 우리자신만을 위하는 부자, 곧 실상은 가장 메마르고 가난하였던 옛 스크루우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민족에게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는 부유한 빈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

나오는 이들 :

스크루우지(구두쇠 영감), 조카, 아내(조카의 아내), 아들(조카의 아들) ①, ②

보브(스크루우지의 서기), 모금원, 마래의 영, 과거의 영, 현재의 영, 미래의 영. 행인 ①, ②, ③
아이들

때 :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크리스마스날 아침까지
곳 : 런던

I 경

오른쪽이 스크루우지의 사무실을 겸한 방이고, 왼쪽이 거리이다. 방 왼쪽에 거리로 통하는 문이 있고, 오른쪽에 판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막이 열리면 메부리크의 스크루우지가 책상에 웅크리고 앉아서 계산을 하고 있다.

부삽을 든 서기 보브. 오른쪽 문을 살피서 열고 나

타난다.

스크루우지(뒤돌아 보브를 보며) “뭘 하러 왔어?”

보브 “식탄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스크루우지 “뭘, 식탄이라고?”

보브 “난로에는 만뼛불만한 불씨가 남았을 뿐입니다”

스크루우지 “뭘가 춥다고 겁살이야?”

보브 “춥지는 않지만 손가락이 얼어 글씨를 쓸 수 없어 그럽니다.”(이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보브 왼쪽 문 가까이로 가서 문을 열어준다.)

모금원(들어서며) “여기가 스크루우지 마래 상점입니까?”

스크루우지 “마래? 그 천군 벌써 칠 년전 오늘 저녁에 저 세상으로 갔오.”

모금원 “그럼, 스크루우지 주인님께 부탁 드려야겠군요.”

기부? 모두 빈민 구제소로 보내시오

스크루우지 “부탁이라니?”

모금원 “내일이 크리스마스 아십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 좀 하셔야겠습니다.”

스크루우지 “기부? 빈민 구제소는 뭘 때문에 있는 거요? 모두 그 곳에 보내 버리면 되지 않소?”

모금원(장부를 스크루우지 앞에 내밀며)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적으시지요.”

스크루우지(뿌리치며) “싫다니까.”

보브(당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주워서 모금원에게 주면서) “월급에서 갚기로 하고 저는 조금만 적겠어요.”

스크루우지(발끈 화를 내며) “이 정신 나간 놈아, 제

□……여기에 소개되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디킨스의 1843년(31세)작으로서 소위 그의 일련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들 중의 한 편인 것이다.
영국 성탄절의 전통에 유달리 매력을 느낀 디킨스는 두 가지 목적에서 5년간,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한 권씩 썼다. □

코가 석자나 빠진 놈이 무슨 기부냐?”
모금원(보브에게) “정성은 고맙습시다만...(나가며)
그럼, 안녕히들 계십시오.”
보브 “안녕히 가십시오.”
스크루이지 “나더러 돈을 내라고? 어림도 없는 수작이지.”
(스크루이지의 조카, 왼쪽 문으로 들어온다.)
조카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씨,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스크루이지 “시끄럽다!”
조카 “그러지 마시고 내일 저희 집 만찬회에 꼭 오세요. 예?”
스크루이지 “안 간다.”
조카 “하는 수 없군요. 안녕히 계세요.”
(밖으로 나가면서 보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보브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이지(혼자말로) “제 형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니, 가기 막혀서……”(폐종이 여섯시를 알린다)
보브(시계를 울려다 보고는) “영감님, 퇴근해도 괜찮겠지요?”
스크루이지 “가려무나.”
보브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니까…….”
스크루이지 “쉬겠다 그 말이지?”
보브 “성탄절 예배드리러 가야 하나까요.”
스크루이지 “알았어. 하지만 내일 하루 풀샴은 제하는 거야.”
보브 “하지만…….”
스크루이지 “잔소리 말고 빨리 가.”
보브 “기쁜 성탄을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루이지(왼쪽 문으로 사라지는 보브 뒤통수에다 대고) “건방진 녀석!”
(교회의 종소리 들리고, 어린이 악대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크리스마스 송가를 연주하며 거리를 지나간다.)
스크루이지(거리를 내다보며) “미친 녀석들.”
(불이 꺼진다.)

2 경

불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다. 스크루이지, 소파에 기대어 자고 있다. 폐종이 열 한 시를 알린다. 이어, 쇠사슬을 끄는 소리가 들린다. 스크루이지, 잠꼬대를 한다. 이윽고 온몸이 사슬에 묶인 마래의 유평이 나타나, 자고 있는 스크루이지 앞에 선다.
마래(울림 마이크 소리로) “가엾은 구두쇠.”
스크루이지(살며시 눈을 떠 마래를 올려다보고 놀란 목소리로) “누구냐?”
마래 “칠 년 전 이 밤에 자네 절을 떠나간 사람을 기억하냐?”

내가 사슬에 묶여 있다고?

스크루이지 “그렇다면, 그런 마래의 유평?”
마래 “맞았네.”
스크루이지 “그런데, 자네 웬일로 사슬에 묶여 내 앞에 나타났나?”
마래 “하지만, 자네 내 사슬보다 더 짧은 사슬에 묶여 있는걸.”
스크루이지(자기 몸을 살피며) “사슬에 묶여 있다고 마래 “자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독한 구두쇠 사슬에 묶여 있던 말일세.”
스크루이지 “구두쇠 사슬이라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 이유는?”
마래 “말하지, 자네에게 자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야.”
스크루이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 듣지 못하겠네 마래 “곧 알게 될 거야. 기회를 잃지 마라.”
(신비스런 음악과 함께 마래 사라지면서, “기회를 잃지 마라!”라는 울림이 차츰 멀어져 간다. 불이 꺼진다.)

3 경

2경의 스크루이지의 방은 온통 어둡고 왼쪽 거리쪽만 조명을 비춘다. 스크루이지, 사슬에 묶인 과거의 영에 이끌려 나타난다.
스크루이지 “당신은?”
과거의 영 “난 과거의 영이다.”
스크루이지 “날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
과거의 영(주위를 가리키며) “저기를 봐.”
스크루이지 “앗! 여기는 내 고향이다.”
(과거의 영이 시를 읊듯 다음 대사를 말할 때, 사내 아이들, 나타나 즐겁게 논다.)

아! 저건 나다 소년 시절의 나다

과거의 영 “가련한 로빈슨 크루우소우는 어디로 갔나 알리바마는 있느냐? 노래하는 파란 앵무새여, 한번 더 노래해 다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노래에 맞춰 열음을 지치는구나.”
스크루이지(즐겁게 열음을 지치고 노는 한 소년들을 가리키며) “아, 저건 나다. 그 날 크리스마스날, 동무들과 열음을 지치던 소년 시절의 나다.”
(호느갸다.)
과거의 영 “넌 책을 좋아하던 소년이었지. 로빈슨 이야기도 알리바마의 이야기도…….”
스크루이지 “그렇습니다”
부거의 영 “그렇게 착하던 네가, 나이가 들어 가면서

□……………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란 단지 칠면조 불고기나 포도주들은 푸딩을 먹는 날일 뿐만 아니라, 화해와 동정의 날이며, 가난한 사람들과 친히 사귀는 기독교이념, 따뜻한 인간성을 깨우쳐 주는 날이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깊이 깨달은 때문이었다. □

□.....특별히 한 마디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디칸즈가 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쓰면서 울고 웃고 했으며 이 작품구상을 위하여 런던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에 어둠 속에 뒤덮인 런던의 거리 거리를 15~20마일 씩이나 걸어 다녔다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다.□

욕심꾸러기로 변해 간 거야.”

스크루우지 (피로와 한다.)

과거의 영 “저 아름답던 소년 시절의 눈은 나이 들면서 독사 눈같이 변해 갔고, 너의 그 예쁜 코는 메부리코로 바뀌었다. 책장을 넘기는 그 귀여운 손은 돈에 벌벌 떠는 차가운 손이 됐고..... 그렇지?”
(과거의 영이 “그렇지, 그렇지.....” 하고 스크루우지에게 옥박치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불이 꺼진다.)

4 경

불이 꺼지면 소파에서 자고 있던 스크루우지, “그만 그만”하고 소리치면서 일어난다. 이 때 신비스런 음악과 함께 현재의 영이 나타난다.

스크루우지 “넌 또 누구냐?”

현재의 영 “난 현재의 영이다?”

스크루우지 “또, 난 어디로 메려가려는 거냐?”

현재의 영 “잠자코 날 따라오라!”

(현재의 영, 스크루우지의 팔을 잡고 방에서 사라진다. 불이 꺼진다.)

5 경

오른쪽 스크루우지의 방은 어두워지고 왼쪽 거리가 밝아지면, 거리는 스크루우지 조카의 방으로 꾸며져 있다. 조카네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 한 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다.

스크루우지 “아, 여긴 네 조카네로구나.”

현재의 영 “그렇다.”

조카(아이들에게) “어서 시작해 보아라.”

아들① “동물성!”

아들② “새입니까?”

아들① “아닙니다.”

아들② “고기입니까?”

아들① “아닙니다.”

아내 “짐승이냐?”

아들① “글쎄요?”

조카 “글쎄라는 대답은 안 돼.”

아들① “짐승이라고 해 두죠.”

예! 돼지하고도 비슷합니다

아들② “집에서 기를니까?”

아들① “집에서 살지만 기르진 않아요.”

조카 “기르지 않는다면 무엇일까? 런던 안에 있지?”

아들① “그렇습니다.”

아내 “귀엽게 생겼니?”

아들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들② “곰입니까?”

아들① “비슷합니다. 돼지하고도 비슷합니다.”

아들② “곰과 돼지와 비슷하다면 욕심꾸러기 사람입니까?”

아들①(큰 소리로) “그렇습니다.”

조카 “에게 이놈, 스크루우지 할아버지 말이구나.”

(조카, 가족들 모두 웃자, 한쪽에서 있던 스크루우

지, 얼굴을 돌린다.)

조카 “그러지 말고, 우리 불쌍한 스크루우지 할아버지 위해 기도를 드리자.”

아이들 “그랬요.”

(모두 눈을 감자, 불이 꺼진다.)

6 경

다시 불이 밝아지면, 이제까지 조카의 방이었던 거리가 묘지로 바뀌어져 있다. 가운데 비석이 서 있다. 행인 셋이 비석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다. 스크루우지, 미래의 영과 함께 한쪽에 서서 행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행인①(비석을 훑어보며) “여기 한평생 저 혼자만을 위해 산 구두쇠 스크루우지, 영원히 잠들다.”

비석—구두쇠 스크루우지 잠들다

행인② “가없는 사람.”

행인③ “그러나, 꽤 부지런한 사람이긴 하였어.”

행인① “부지런하던 뭘 해? 인정이 있어야지.”

행인②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 모르는 바보였어.”

행인③ “정말 그래 죽으면 이렇게 흙 속에 묻히고 마는 것을.....”

행인① “가세, 우리 열심히 돈을 벌어 값있게 쓰도록 하세.”

행인②, ③ “그러세.”

(행인들 사라지자 미래의 영, 스크루우지의 손목을 끌고 비석 옆으로 간다.)

미래의 영 “어때? 멀리 않아 너의 무덤 앞에 저런 비석이 설 텐데.”

스크루우지 “싫어. 내 무덤에 그런 비석이 서길 원하지 않는단 말이요.”

미래의 영 “그러나, 하는 수 없어. 비석의 비문은 바로 네가 세긴 걸.”

스크루우지 “싫어! 싫어!”(불이 꺼진다.)

7 경

스크루우지의 방이 밝아진다. 소파에 자고 있던 스크루우지, “싫어!”하고 소리치며 벌떡 일어난다. 밝은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춘다.

아니! 아저씨도 그런 인사를

스크루우지 “아니, 여긴 내 방이 아닌가?”

조카(들어오며) “아저씨,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우지(반감게) “메리 크리스마스.”

조카(스크루우지를 바라보며) “아니, 아저씨도 그런 인사를?”

스크루우지 “그래 이상할 거야.”

밖에서 아이들이 떠돌며 지나간다. 스크루우지, 한 길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아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자, 아이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대답하면서, 스크루우지 집 쪽으로 다가와 집 안을 살피며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좌 · 행 · 참 座行站

오늘날의 사회는 비정상적인 활동이 정상처럼 결체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교회는 비정상적인 신앙운동이 정상적인 복음적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 이때에 신앙인들은 좌충우돌해 가며 올바른 좌표를 갈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생활표인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워치먼·니(Watchman Nee)는 중국인으로 대학시절에 선교의 전도를 받아 개심한 후로 평생을 예수님께로 헌신한 목회자이며 대부흥사이다.

워치먼·니 목사는 이 책에서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영적진리를 파헤쳐 참 복음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라고 일깨워주고 있으며, 일반성도들의 행함있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바울 서신들이 다 그렇듯이 에베소서도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뉘는 태이를 통해 성도들에게 부과된 생활태도와 원수 사탄에 대한 투쟁을 언급하고 있다.

앉아라(Sit, 엡 2:6)와 행하라(Walk, 엡 4:1)와 서라(Stand, 엡 6:11,13)를 주제로 하나님 손 안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그의 지위, 그의 생애, 그의 전투태세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워치먼·니 저, 권혁봉 역, 생명의말씀사, P76 값290원.

컬럼

겨울은 춥고 황량한 계절이다. 이러한 계절에 사람들은 따뜻하고 아늑한 곳을 그리워한다. 현대 이상한 것은 이와같이 추위에 떨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만 계절보다 더 춥고 쓸쓸한 것이 많은 것이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이 또 왔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이다.

年末年始景品附 冠詞가 붙은 상가들. 한결 추워진 거리. 소담스러운 눈. 추위에 하얀빛을 뿜어내는 가로등. 한층 더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들. 파란색에 떠 있는 하얀반달. 점점 빈잡을 더해가는 거리에 덩달아 부풀어 오르는 마음. 거리의 차선남비에 동전을 던지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곳 착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벽에 한장 달랑 남아 걸린 달력이 외로와 보이고 신년의 달력이 오갈 때 한해가 간다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며 마지막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며 지나온 한해를 다시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65일중 과연 몇일이나 아니 몇시간이나 실감나게 살아왔는가, 주야에 최고의 헌신을 다짐했지만 최소의 헌신도 못한 것이 아닌가, 주야에 철저한 반성과 회개 가운데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여야 될 것이다. 이는 사는 것이 연습이 아니고 꼭 한번뿐이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終月 12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일들이다.

존즈씨, 그분을 만나보시오

이 책은 부자와 저명한 사람들에게 주는 글이라기 보다 셀러티멘, 운전사, 빈민 늙은이, 젊은 학생들에게 주는 글이며 그리고 저자가 「존즈씨」, (Mr. Johns)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이다. 특히 9장의 「존즈씨, 그분을 만나보시오」라는 소제목에서는 현대 미국 사회속에서의 젊은이들이 세속의 물결과 타협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를 「술」로 다루면서 술이야말로 마귀가 오늘날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들의 하나라고 저자는 밝히고 20세기 「존즈씨」들은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분을 만날 것을 당부한다. 그분은 생활을 송두리채 변화시킨 그리스도(Master)를 가리키며 교회안에 들어와 주님과 직접교제를 통해서 해결받도록 호소하는 책으로 젊은이들은 이 책을 읽으므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한다.

피터·마셜 목사는 뉴욕 에비뉴 장로교회와 상원원목을 지내면서 미국 수백만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상원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자리를 도중 떠났다고……

워싱턴 포스트지 평—「본서의 어떤 대목은 당신으로 하여금 몇번씩 거듭 읽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라 고……」

★ 피터·마셜 저, 문창수 역, 백함출판사, p206. 600원. <정관일 목사 추천>

매년 한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다. 그러면서도 매년 그 다사다난하다는 말을 한자 한자 음미하며 공감할 하곤 한다. 그러면 세상은 해마다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실감나게 느끼는 것은 인간부재, 자기상실, 불신, 갈수록 마치 모래알같이 갈갈해져 가는 인간의 마음 등 인간에관한 것들이리라.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해마다 학교는 늘어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풍조도 비례로 늘어가니 교육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크리스찬에게 물어야 되고 또 크리스찬은 그 책임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단절도, 절망도 불화도 불신도 독선도 오만도 모두가 사랑엔 녹는 것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모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을 입었고 따라서 그 사랑을 전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소금과 빛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금씩만 해 주어도 세상이 이처럼 혼탁하고 춥고 슬프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교두보인 것 같이 우리 크리스찬은 인간의 최후의 교두보인 것이다.

12월 · 사랑

이 형 수

무엇이 교사의 자질인가?

정 기 성 목사

주님의 몸으로서 지상교회의 주 임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최고의 모든 부탁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마 28:19-20)고 하시었다. 이 가르치는 일을 대상과 방법에 따라 전도라, 교육이라, 또는 봉사라 할지 모르지만 선생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르치는 일은 교회의 본연의 임무이다.

교회가 교인들을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에 따라 교회는 본연의 임무를 다 하느냐 못 하느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충성이란 본연의 임무와 관계한 말이다. 아무리 분주하게 다니는 주부일지라도 자기의 본 임무인 가사일을 돌아보지 않는 주부는 게으른자의 낙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사회운동을 많이 하여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으로 가르치지 못 한다면 역시 게으르고 악한 종이란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명령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모세를 충성된 종이라 인 것은 자기의 의견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교회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직분이 목사이다.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 하는 교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일에 등사자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다.

1. 하나님은 이같은 직분을 가진자들에게 제일 먼저 충성을 요구하신다.

비밀을 맡은자, 맡은자에 구할것은 충성이라 (고전 4:12)고 명하시었다.

교회의 부흥요소는 충성

교회를 보면 교회의 부흥요소는 충성이었다. 충성 앞에는 환경이나 시대나 경제가 관계없다. 충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충성이 없는 곳에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실패뿐이다. 율법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중세 암흑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실예이다. 더욱이 오늘 같은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자를 요구하신다. 구원의 감사에 감격에 찬 찬송을 부르며 충성해도 아쉬워하는 충성자를 기다리신다. 사탄으로의 충성을 넘어 아들로서의 충성을 다 하였으면 얼마나 바람직한 교사이겠는가!

(히3:5, 6)

2. 그리고 다음은 덕이 있는 교사이다.

영혼을 돌아보는 교사가 사랑과 인내의 덕으로 일하지 않으면 삼꾼목자와 같이 언제 어대서 배신 할런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업의식엔 사랑이 없어도 될지 모르지만 사명의식엔 사랑없이 안 되는 일이다. 비인격적이면 모르지만 인격은 사랑이란 태양없이 커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교사가 되어서 사사로운 일에 자주

걸식을 하고 지각을 하며 장기걸식하는 학생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사명적 태도가 아니요, 인격자를 키우는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덕이 없기 때문이다.

덕이 없는 교육은 감화가 없고 변화가 없다. 아마 오늘날의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교육은 지식전달의 목적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자를 키우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복음기가 더 정확하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하시었으며,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쟁가리라고 하시었다.

교육은 그리스도인격자를 위한 수단

참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안에 있어 믿음으로 사랑의 덕 쌓는 법을 무엇보다 배우기를 힘써야 하겠다. 이것이 훌륭한 교사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3. 끝으로 학구적인 교사가 바람직한 교사이다.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과 같으면 족하다고 하시었다. 제자는 선생 이상으로 자라기 힘들다는 뜻도 되겠다. 선생의 실력이 곧 제자의 실력이다. 그러므로 제자를 키우는 선생의 실력은 큰 책임이 있다. 선생이 공부안 한다는 것은 학생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것 보다 몇 배나 빠르다. 공부 안 하는 교사는 자기뿐 아니라 수 많은 사람을 몰락시키기 때문이다.

성경교사가 성경을 공부 안 하고 가르치겠다는 것 못 웃은 일이다. 예수님 이외엔 이 세상에 아무도 완성된 교사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교사가 될 수 없다.

교사의 부단한 성경공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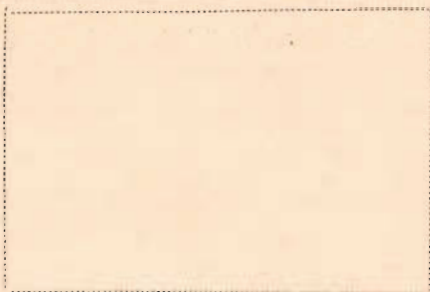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양성부며 성경학원이 있다. 우리는 이같은 기관을 통해 성경연구 방법등을 공부할 수 있다. 주일공과나 보아가지고는 훌륭한 교수를 할수 없을 것이다. 계속 기도속에 성경을 연구하여 자기가 말씀화 하여 학생들 앞에 나치기를 노력하는 교사가 참으로 바람직한 교사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장 모범적 교사이다. 예수님은 참으로 충성하시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었다. (빌 2:8)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무리를 위하여 참으로 사랑과 인내로 저들을 인도하시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열두살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잘 안다. 열두살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논하시었다. 그후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원충이 있다고 간증하였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학구적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과 연구는 하나님의 교회 교사의 자질로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여 충현교회 교사 각자는 이에 진력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초대 교회의 선교정신

— 본 논문은 「제임스·스튜어트」저 “New Testament Evangelism”이라는 책 제3장(Methods of the Early Church)을 발췌한 것이다—



초대교회가 설립된 후 약 25년간의 기독교 초창시기의 그 활동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만일에 후대의 교회들도 그들의 모범을 그대로 계승하였다면 이 세계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50 번 이상이나 완전히 복음화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어떤 학자는 말하였다.

진실로 오늘날 이 시대가 진실히 부르짖는 요구는 이러한 선교정신에 불타는 사도시대에 어서 속히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이란 어떠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암시(暗示)를 주는 중요한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만방에 복음을 전파케 하기 위한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저들에게 부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절은 사도행전 6장 1절이다. 이 성경절은 바로 1장 8절의 기록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와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리마야」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한 그 말씀에 뒤이어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함새」라고 기록되어 있다.

누구나, 어디서나, 개인전도 실시

여기에서 우리는 저들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상하여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저들은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그 어떠한 계급과 처지를 막론하고 모두 복음을 전파하는 중인들이었다.

둘째로, 저들은 어디에 가나 어디에 있으나 그 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셋째로, 그들의 전도 방법은 주로 개인 전도이었다.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과 오늘날 우리의 소위 현대식 방법과를 서로 비교해 볼 때 우리 방법은 너무도 의식적(儀式的)이요, 기계적인데 불과할 수 없다.

직접적, 전투적, 단순한 방법으로

그들은 주로 밖으로 나아가서 전도했다. 그들의 전도 방법은 직접적이었고 동시에 전투적이었나 매우 단순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두 집사를 얼마나 강한 능력의 사도로 사용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라.

「스데반」과 「빌립」은 초대교회의 능력있는 복음의 정병(精兵)으로서 영원히 빛나고 있다.

오늘날 어디에서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그러한 장로를 찾아 볼 수 있겠으며 또 복음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찾아다니는 집사와 장로를 찾아 볼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의 방법은 너무도 성경적인 방법과 거리가 멀다.

우리 신도들은 전도의 책임을 소수의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들에게 맡기고 안심하고 있다.

오늘날 가장 힘쓰는 방법이란 막대한 비용을 써서 큰 전도대회를 여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또한 수백만원의 돈을 드려서 교회를 짓고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평신도, 이름없는 제자가 전도에 전력

「F. B. 마이어」는 말하기를 「『안디옥』은 기독교 역사상에 영원히 빛나는 유명한 곳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핍박을 당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간 많은 평신도와 이름없는 제자들이 용감히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곳이기도 회개한 자들을 모아서 저들의 손으로 교회를 세운 곳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오늘날 현대교회와 같이 저들도 전도의 사명은 오직 교직자에게만 책임지우는 그러한 태도였다면 우리교회사에 그렇게 빛나는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성경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전도의 열이 일반교회와 선지자들의 심령에서부터 불타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비극이냐?

우리가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만일에 우리 신자들이 자기네들의 신앙만을 위하여 조그마한 교회를 가지고 연보를 모아 교역자를 두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이 땅의 복음화(福音化)는 그만두고라도 교회 그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다시 찾아야 할 성탄절

홍 중 만 목사

<초등부 지도>

교회의 여러가지 제도와 절기에 따른 행사를 중에는 그것의 본래의 의의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들이 많다.

성탄절도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크게 두드러진 의의가 있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모든 기독교자들에게 널리 일반화된 절기가 된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절기의 행사가 점차 확대 되어 오는 중 지금은 엉뚱한데로 퍼져서 본래의 의의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빗나가게 되었다. 한마디로 성탄일이 일반 서양 사람들의 명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영향은 이제 우리 주변에 까지 퍼지게 되었다.

일반화된 성탄절은 우리 주님을 기쁘게해 드리는 생일이 아니라 오

히려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날이 되었다.

본래의 성탄절을 바로 찾아서 내놓고 있는 성탄절을 지켜야겠다.

성탄절이 되면 하루 주위가 시끄러우니까 이 사회에서 까지 조용히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자는 캠페인을 벌이게까지 되었다.

오래전 어린시절 성탄절 때마다 촛불 초롱을 들고 하얀 눈길을 밟으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며 감격속에 맞던 성탄절이 간절하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는 눈에 보이는 신앙적인 행위는 그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영적 내용이 기초되어 있어야 한다. 성탄절도 우선 그것의 신령한 영적 의의를 성경말씀속에서 찾아 내야겠다. 그것이 없는 모든 제회이나 순서는 허수아비 광대 놀이

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소리내고 움직이기 전에 먼저 조용히 머리 숙여야 마땅하겠다.

이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구원의 언약을 다시 감격속에 새겨 보게 된다 (창 3:25, 눅 9:9)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영적 축복을 깊이 음미 해야겠다 (눅 2:8-22). 이런 근본적인 바탕이 내 속에 없이는 일체의 표현들은 신앙을 떠난 사람들의 길치레들이다.

이것을 찾은 후에 우리들이 바랄만한 활동을 할 만하다. 신자의 모든 생활이 그러해야겠지만 특히 이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해야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뜻한 정성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자. 또 함께 모여서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믿음의 형제들끼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교회의 시간을 가져자. 가족적으로 한자리에 둘러앉아 감사의 제단을 쌓자.

오래전 어렸을 때 24일 저녁이면 온 교우들이 촛불을 들고 초동을 들고 하얀 눈길을 밟으며 이 동네 저 동네, 이 골짜 저 골짜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며 감격 속에 소박하게 맞이하던 성탄절의 의의를 찾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우리 가정의 성탄절

최 성 립

<고등부 부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평화로다.”

우리가정의 성탄절행사를 써달라

하여 쓰지만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로써 좀 주저되는 바다.

우리집 어린이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교회에서 배운 아름

다운 이야기를 엄마에게 해주면서 기뻐하는 어린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아닐수 없다. 집안식구가 모여앉아 오늘하루의 일을 감사하고 금년 한해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데 우리집 꼬마들은 머릿진 이쁜 인형을 주세요 하는 소원은 친जन만 하거만하다. 성탄절 전날 우리집 메뉴에 빠지지 않는 만두를 먹는 아이들은 “예수님도 만두를 좋아하셔요”하면서 우리의 대답을 듣고는 “하하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데”하면서 마냥 즐거워 한다.

성탄절에는 아이들은 산타할아버지를 무척 기다리기 때문에 평소 애 갖고 싶어 하는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였다가 24일 저녁에 아이들이 잠든 틈에 머릿말에 놓고 잔다. 그랬더니 꼬마들이 무척 좋아하며 “아이 산타할아버지 언제 오셨다 가셨지 우리좀 깨우지”하며 서운해 하면서 “산타할아버지는 참 부자인가봐 우리가 갖고싶어 하는 것마다 주잖아, 엄마 산타할아버지 고마운 분이지, 산타할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아이들이 조그만 선물을 받고 무척 좋아하는데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가.

어리고 친जन만한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은 나의 바람직한 일이다. 쓸데없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자 하는것은 이세상에 조용하게 말구유간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에서다.

언제나 1년동안에 우리가정의 요절이 되는 시편을 정하는 것도 바로 이 날인 것이다.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면 산타할아버지의 실제이야기를 해주어 이해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려고 한다.

우리 가정만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고 불쌍한 사람들에겐 나눠주고 도와줄줄 아는 어린이가 되도록

육 하고저 하는데 남모르게 도움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하도록 할것이다. 우리가 받은 복을 감사하며 믿는 가정으로서의 적은 정성을 하나님께 다하여 최선의 사람이 될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언제나 일년동안의 우리가정의 요절이 되는 시편을 정하는 것도 바로 이날인 것이다.

1973 · 성탄절 · 명동

이 양 우

<중등부 교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또 크리스마스시즌에 우리 온 인류에게도, 나에게도 찾아 왔다.

작년 크리스마스 날이었다. 그 날은 날씨가 매우 추웠다.

날씨가 추웠을뿐만 아니라 정국과 사회 환경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명동전도」가 당국에 의해 허락되어 갔다. 참으로 반갑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총현교회 청년부 전도단을 따라 추위를 무릅쓰고 같이 전도하러 나갔다. 80여명의 총현의 남녀 젊은이들이 귀악의 거리! 환락과 음란의 거리인 동시에 웅장한 빌딩의 숲들의 우뚝 우뚝 솟아 있는 명동의 네거리에서, 골목 골목마다 찾아 다니면서, 어둠과 고독과 혼란한 세태속에 허덕이는 내 동포들에게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과 말씀으로 전파하였다.

네거리마다 원을 그리고 힘차게 주 예수님의 오심을 만민에게 찬양으로 알리고, 물썩 물썩 짙어 집포마다 다방마다, 평화의 왕. 생명의 왕. 영원한 왕이신 살아 계신 구세주 예수님의 복음을 민족의 가슴마다 부렸었다.

내가 국민학교 5학년때 부터 교회에 나온 이후 크리스마스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 보기는 처음이었다.

크리스마스! 내 구주 예수님이

나신 이 날에 이 귀악의 도성, 그 중에도 가장 음란하고 사치와 허영이 가득차 있는 그 「명동의 거리」에 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거룩한 행진이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찾아 오면, 목사님 전도사님께 또 부모님과 스승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서로 서로 선물 교환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바쳤을까? 율해도 며칠이 지나면 참으로 인류의 소망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진지전능한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게 된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발앞에 무엇을 바칠까? 각자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해 봐야겠다.

원금도 하나님께 충성히 바쳐야겠다. 그러나 더욱 귀중한 것은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주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참된 선물을 주 앞에 충성히 바쳐야겠다.

이 혼란하고 궁핍한 세대에 주 예수님의 평강을 내 가슴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와 사회에, 더 나아가서 온 민족과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거룩한 행진이 우리 총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전개되어지는 율해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하고 소원해 본다.

기 지 석

○...우리들의 기억 속에 또 올가을은 유난히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추위로 예년보다 빨리 닥쳤고, 그에 반해 아직 준비가 부족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가뜩이나 더 착잡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제대로 음미해 보기도 전에 가랑이가 날렸고, 쌓인 낙엽들에 가랑비 들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아련한데, 겨울 들어 푸짐한 함박눈이 벌써 몇 차례나 내렸을 겁니다.

○...12월, 종결산을 감행해야만 하는 달입니다. 그동안 항간에서는 자유 선언·연론 보장 등 시골했었지만, 우리 「충현」은 세파에 휩쓸림 없이 이제 한 계단씩 발돋움하여 「충현」 제12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호가 올해로는 우리의 결산서가 되나 봅니다. 지난 반년동안 이리저리 뒤며 수고한 많은 분들의 수고가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았기를 바라며, 또한 모든 충현 식구들의 기쁜 크리스마스와 밝고 알찬 새해를 빕니다.

〈영〉

○...사람은 그 무엇인가 한 가지 물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역시 바빠야 살 맛이 난다던가. 한겨울에 맞은 개강과 함께 원고마감 시간을 코 앞에 두고 원고 마련에 쫓겨 사뭇 바빠진 마음. 신조들의 「분주철학」을 체험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뿐이다.

○...이제, 창 밖에 훑날리는 성긴 눈발을 바라보며 조그만 휴식을 갖고 싶다.

〈희〉

○...하이얀 눈도 이제는 첫눈이 아닌, 벌써 아기 예수 나신 달이다. 1년 가까이 되는 동안 편집자를 돕지도 못하고 숙만 썩힌 것 같다. 비교적 원고는 제 날짜에 제출하긴 했지만—때론 당황도 하고, 수탁자를 만나지 못해 뛰다니고—그래도 바쁨 속의 여유를 느끼며 펜을 들곤 한다.

○...이젠 기초조 조금 깨달았으니 지난 날의 과오를 지우기 위해서도 마지막 남은 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새해엔 좀더 성실히 일하리라 생각하며 창 밖을 본다. 아직 떨어지지 못한 일새들이 서너장 매달려 있다.

〈향〉

○...어김없이 찾아드는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리들을 위하여 영광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죄인의 형상을 입으셔서 이땅에 오실 때도 가장 추울 때, 주막집 마굿간에서 탄생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나의 연중행사로서 친목과 오락 중심인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맞이할 것인가. 〈순〉

○...성실한 생활로 열매를 맺기로 결심했던 한해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면 누구나 이루어 놓은 결심보다도 못 다한 미흡한 생활만을 자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또 한해가 주어질 시간으로 등장할 즈음, 걱정과 불감만만으로 제자리 걸음을 파놓은 행동을 뒤늦게 깨닫고 차라리 그 시간 그 때에 한발 자국이라도 움직여 뛰쳐보는 실행이 부족했던 어리석음에 그만 고개를 수그러진다. 〈호〉

편집하고 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연초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함에 속이 뒤집어지고 끝내는 가슴이 터지고 만다. 그러나 또 다시 새해라는 이름의 신기루와 같은 미래에 터진 가슴을 주어모아 뽕뽕 묶어 본다. 이렇게라도 해두지 않고는 할바를 다하지 못한 아픔에 그대로 이 해를 넘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열적 없는 소리 같지만 월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1975년의 「충현」지에 기대를 걸어 보자. 〈표〉

◇...충성치 못하고 충실치 못하고 충분치 못한 가운데 74년의 마지막 호를 내게 되니, 착잡한 심정이다. 교회가 점점 발전되고 조직이 팽배해짐에 따라 이 모

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니 이가 곧 「충현」이다.

◇...그 동안의 무관심과 협조 없고 비판 없이 뜻 없는 배마냥 이리저리 흔들리던 「충현」지가 체제를 갖추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74년에 우리교회에서 열린 가장 큰 수확이리라. 오는 해엔 보다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자차없는 비판 속에서 명실공히 충현의 「충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주일학교 교육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문제가 있으니 곧 교사의 자질향상문제이다. 항상 이야기 되지만 무엇을 교사의 자질이라고 하느냐고 묻는다면 명확히 이야기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때에 정 기성 목사님의 “무엇이 교사의 자질인가?”하는 글을 실게 되어 펴 기쁘다.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나 학생을 맡고 있는 주교교사보다 더 중대한 직책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교사의 자질문제를 다루어 교사 스스로가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정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75년도엔 교육위원장을 맡으셨다니 기대와 아울러.

◇...그동안 함께 애쓰시던 친목사님이 시내 마포구에 갈보리 교회를 맡으시고 가셨다. 또한 함께 배우며 함께 뛰던 신재원 기자가 임대했다. 한 팔이 잘린 듯한 허전함 속에 큰 경험과 많은 배움으로 깊고 넓어져서 돌아올 날을 기쁨으로 기다린다. 친목사님과 신기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린다. 〈형〉

